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⑪ 양산 통도사 목조소통(疏筒) 3기



▶ **한줄 요약**
소통은 불교의식을 행한 발원문 등의 글을 적어 넣어두는 통이다. 쉽게 말해 소원을 담은 글을 간직하는 통이라 보면 된다.

간절한 발원, 꽃살로 장엄하다

소통, 소망하는 글을 보관하는 통

한 사찰의 중심 불전엔 당대의 종교장엄 역량이 결집한다. 특히 부처님 상을 모신 장대한 불단엔 불교의식을 위한 의례 장엄구들을 특별히 제작하여 배치한다. 향로와 촛대, 불패, 경전함 등이 그런 의례 장엄구들이다. '소통(疏筒)'도 그 중의 하나다. 소통은 '소대(疏臺)'라고도 부르는데, 이름부터 낯설다. 어디에 사용하는 의례구인지 아는 사람조차 드물다. 소통은 불교의식을 행한 발원문 등의 글을 적어 넣어두는 통이다. 쉽게 말해 소원을 담은 글을 간직하는 통이라 보면 된다. 생김은 편평한 긴 사각기둥 모양이다. 대체로 불단 위 불상의 좌우에 하나씩 한 쌍을 배치한다. 소통의 '소(疏)'는 '소문(疏文)'을 의미한다. '소문'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 확 트인 글이고, 소통하는 글이다. 조선시대 문헌 자료에 등장하는 소문을 분류하면 대체로 네 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소망을 적은 발원문. 둘째,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 셋째, 일의 전후 과정을 소상히 밝힌 글. 넷째, 상소문 등이다. 첫째와 둘째는 불교 성격의 소문이고, 셋째와 넷째는 〈조선왕조실록〉 등에 등장하는 성리학적 성격의 소문이다.

불교 경전과 관련하여 경전의 내용을 쪼개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 것을 '소(疏)'라 한다. 주석과 상통한다. 예를 들면 징관의 〈화엄경행원품소(華嚴經行願品疏)〉, 당나라 법장의 〈반야심경략소〉 같은 종류다. 그때 소문은 경전의 원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글이다. 책으로 엮을 만큼 장문이다. 그 정도면 소통에 적어 보관하기엔 역부족이다. 소통의 중심부엔 위패처럼 생긴 긴 판목이 꽂혀 있다. 판목의 길이는 대체로 1m 정도이고, 폭은 15~20cm 정도다. 소문을 판목에 직접 쓰거나 판목에 부착, 또는 끼워 넣어 보관한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불단 위 소통에 보관하는 소문은 거의가 발원문임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수륙재, 천도재 등에서 사용한 발원문 등을 중점적으로 갈무리했다.

현전하는 소통은 근 30점에 이른다. 거의가 17세기 이후 조선후기에 제작됐다. 현재까지 제작연대가 알려진 소통은 다섯 점이다. 부산 범어사 소장 웅신사명 목조소통(1661년), 곡성 도림사 소장 선유사명 목조소통(1661년)과 1672년 목조소통, 영천 은해사 목조소통(1713년), 영동 영국사 목조소통(1749년) 등이다. 이 중 은해사 소통을 제외하고는 묵서명에서 한 결 같이 소통을 '소대(疏臺)'라고 적어 뒀다. 소통 기단부 밑바닥에 묵서를 남겼다. 영국사에선 "건륭14년 기사11월일 영국사 소대(寧國寺 踈臺)"라 썼고, 도림사 소통에선 '선유사 유전어소대야(仙遊寺留傳於疏臺也)'라고 적어 뒀다. 소통의 고유 명칭이 '소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유기능과 형태를 보면 '소통'이라는 용어가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소통이라는 용어로 일관한다.

몸체에 불단과 꽃살문 장엄 재현

소통의 크기는 90~135cm 정도다. 가장 큰 것은 범어사 소통으로 132.6cm에 이른다. 구조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기단, 몸체, 뚜껑 세 부분이다. 몸체의 폭은 20cm 안팎이고, 두께는 8cm 안팎이다. 몸체 내부엔 소문을 쓰거나 끼워 넣는 얇고 길쭉한 사각형 판목이 칼집 속의 칼처럼 꽂혀 있다. 그 위로 뚜껑을 덮는다. 기단은 대체로 상하 이단으로 제작한다. 부산 범어사, 영천 은해사, 곡성 도림사, 예천 용문사, 영동 영국사 등의 소통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기단부 형태다. 상하 이단의 기단형식에선 상층에 난간을 두르는 공통 특성도 보여준다. 여러 소통을 비교할 때 소통의 전형 형식은 난간을 갖춘 이단 형식의 기단부에 비석처럼 생긴 얇은 두께의 길쭉한 사각기둥의 몸체를 꽂고 그 위에 간단한 사각형 뚜껑을 씌운 형태로 정리된다. 그 중에는 여수 흥국사 소통처럼 몸체를 육각기둥으로 제작한 특수한 것도 있음은 물론이다. 목조소통에서 조형의 아름다움이 집중되는 곳은 몸체다. 몸체의 앞뒷면과 양 측면에 불단이라든지 꽃살문, 천정장엄에 조각한 문양과 채색들이 재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법당 장엄에서 나타나는 소재들, 이를테면 용, 봉황, 연꽃, 모란, 범자장엄, 넝쿨연화문, 새, 물고기 등이 두루 장엄소재들로 나타난다. 몸체부 조각은 투각기법과 양각을 혼용한다. 투각은 소통 내부에 대한 환기의 기능성을 염두에 둔 세심한 작업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몇 곳의 소통 몸체에 표현한 장엄소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 범어사 소통: '옴마니밧메훔' 육자진언과 '옴람' 정법계진언, 卍자. △상주 북장사 소통: 구름 속에 용틀임하는 용, 선학, 동자와 파랑새. △수원 용주사 소통: '옴아훔' 삼신불 범자종자자('훔'자는 범신, '아'자는 보신, '옴'자는 화신에 대응한다.) △예천 용문사 소통: 붉은 보주를 다투는 쌍용문과 두 줄의 국화문. △여수 흥국사 소통: 넝쿨연화문. △영동 영국사: 다섯 송이 모란꽃. △영천 은해사 소통: 모란꽃과 새 네 마리. △곡성 도림사: 넝쿨과 꽃을 조각한 꽃살문 형식. △상주 남장사 소통: 연꽃, 매화, 국화문. △울산 석남사: 용과 연꽃. △동국대 박물관 소통: 모란꽃. 목조소통 몸체부의 조각에는 한 결 같이 투각과 선각으로 문양을 새기고, 그 위에 채색을 입혔다. 법당의 불단이나 꽃살문의 조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원문·경전·상소문 등 보관용 통
현전 소통 30여 점 조선 후기 제작
소통 90~135cm 몸체폭 20cm 안팎
조형의 아름다움 집중되는 곳 몸체

〈표〉 통도사 소통 3기 비교

소통 분류	(1)번 소통	(2)번 소통	(3)번 소통
높이	117cm	120.5cm	126cm
제작 시기	17C	17C	17C
재질	참나무	참나무	참나무
기단부	난간 갖춘 2단의 전형양식	사자 세 마리가 떠받치고 있는 2단의 난간형	해태가 떠받치고 있는 연화좌형
몸체 모양	옴마니밧메훔 육자진언	용-모란-연꽃	봉황-모란-연지
뚜껑	사각형 뚜껑	뚜껑 없음	사각 보관형



양산 통도사 목조소통 3기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통


상주 남장사 소통(직지사 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상주 북장사 소통 세부(직지사 성보박물관 위탁보관)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 있던 목조소통

현존하는 소통은 대개 한 사찰에 한 기, 또는 많아야 두 기다. 통도사엔 무려 세 기가 현전한다. 세 기 모두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있다. 한 기만 뚜껑이 없을 뿐 나머지 두 기는 완벽한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통도사의 세 소통은 저마다 고유하고, 저마다 조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목조소통의 아름다움 전모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각각은 한국산사가 간직한 목조소통의 전형과 이형, 파격의 형식미를 보여준다. 통도사 소통 3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사진의 왼쪽부터 1, 2, 3번 소통이라 부른다.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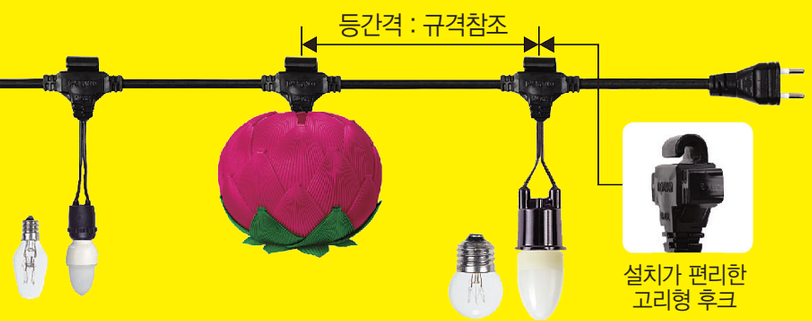
세 목조소통이 가진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은 기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번 목조소통의 기단은 상층 난간을 갖춘 상하 2단의 보편형식이다. 상층 네 모서리에 연봉을 세우고 하엽(연잎)으로 연결한 돌난대를 돌려 난간을 시설했다. 특별한 점은 난간 내부 네 모서리에 3층 소탑을 조영해둔 사실이다. 어느 목조소통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별한 장엄으로 그 의미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자 세 마리가 상층 기단을 떠받치고 있는 (2)번 목조소통은 통도사 대웅전 불단에 있던 것이다. 이미지가 구례 화엄사 4사자석탑이나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을 연상시킨다. 세 마리 사자는 쌍사자석등에서처럼 앞발을 들어 소통을 받친다. 그런데 사자의 얼굴엔 장난기가 넘친다. 아니나 다를까? 가운데 한 마리는 두 팔을 들어 용을 쓰는데 좌우 두 사자는 한 쪽 팔만 들어 잔꾀를 부리고 있다. 조형에 익살과 해학이 배어 있다. 기단 상층은 (1)번 목조소통의 상층기단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했다. 네 모서리에 연봉을 세우고 연잎으로 감싼 돌난대를 돌려 난간을 시설한 점이 동일하다. (3)번 소통은 전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의 본색을 보여준다. 기단부를 해태가 연화좌를 등에 진 파격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켰다. 연화좌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 창녕 관룡사 범종각의 법고대(法鼓臺) 이미지와 겹쳐진다. 해태는 꼬리를 몸 앞으로 감은 채 바닥에 몸을 완전 눕혔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만 무서움과는 거리가 멀다.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있는 작은 체구가 오히려 가엾고 애틋하다. 조형양식의 변화과정으로 볼 때 (1)번 소통이 목조소통의 전형양식을 보여준다면 (2)번 소통은 이형형식에 해당하고, 해태상을 이용한 법고대 양식의 (3)번 소통은 전위적 파격형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통도사의 세 목조소통에 한국산사 목조소통의 A, B, C가 다 있다. 명작의 지위는 형상에 그림자 따르듯 당연한 몫일 것이다.

목조소통의 아름다움은 몸체 조형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된다. (1)번 소통의 몸체에 새긴 육자진언 조형구성은 대단히 섬세하고 치밀하며 조각칼이 누빈 손길의 능수능란함이 오롯이 느껴진다. 넝쿨연화문의 넝쿨은 아래서부터 위로 S자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면서 여섯 송이 붉은 연꽃을 꽃피웠다. 장인은 그 꽃에 육자진언을 새기고 황금색을 입혔다. 그럼으로써 자비와 진리가 충만한 또 하나의 집을 완성했다. 다른 두 소통의 몸체에는 꽃과 물고기, 나비 등 뭇 생명의 세계를 펼쳤다. 활짝 핀 모란꽃에 나비가 펄펄 날고, 여름날의 연지엔 물고기와 게, 조개, 어변성룡이 생명의 공존으로 화엄을 이뤘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여여하다. 그처럼 뜻대로 될 것이다. 목조소통은 간절한 발원의 마음이 결집한 곳이다. 목조소통에 자비와 진리, 발원의 마음이 활짝 꽃피웠다.

〈사진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